

SK의 사회적 기업 '행복ICT'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인프라 에코사업' 집중 육성

전체 직원 66명 중 27명 장애인 ICT기기 리사이클링 사업 통해 장애인 고용 범위 확대나서 발달장애인 3명 신입팀 채용

오는 4일 발달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재단법인 행복ICT가 발달장애인들이 담당하는 ICT 기기 리사이클링 사업을 소개했다.

(재)행복ICT는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 주도적 미래 설계와 자립을 돕는 신성장 사업으로 'ICT인프라 에코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ICT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지정한 사회적 기업이다. 2011년 행복나눔재단·SK(주) C&C·SK텔레콤이 함께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ICT 솔루션 개발 사업을 영위하며 작년 말 기준 73억원의



행복ICT의 ICT 인프라 에코 사업팀원들 모습. /SK(주) C&C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직원 66명 중 41%인 2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번 리사이클링 사업 발굴을 통해 지적장애인 중심이었던 장애인 고용의 범위를 발달장애인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복ICT는 지난해 말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며 자사 ICT 사업 기반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규 사업으로 ICT 인프라 에코 사업을 선정했다. ICT 인프라 에코 사업은 기업들로부터 기증 받은 노후 노트북·데스크톱 등 ICT 기기를

재사용·활용이 가능하도록 리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재판매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SK텔레콤·SK이노베이션·SK(주) C&C·SK E&S·SK인포섹 등 SK관계사에서 노후 ICT 기기를 기증하고 있다.

올 1월 'ICT 인프라 에코 사업팀' 신설 후 발달장애인 3명을 선발해 1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3월에 직원으로 채용했다. 최민우·심장용·김현진 씨는 업무에 투입된 지 2~3개월 만에 노트북·데스크톱 등에 대한 검수와 분류는 물론 ▲부품 탈거 ▲외장 클렌징 ▲부품 분해·조립 등의 전문 업무를 척척 해내며 주위를 놀라게 했다.

자심감에 가득 찬 이들 3인방에게는 올해 새로운 목표와 꿈이 생겼다. 3인방 중 만형으로 PC조립과 게임이 좋다는 최민우 씨는 친구들의 PC도 고쳐주고 게임용 조립 PC 제작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활발한 성격으로 팀 내 분위기

이커인 심장용 씨는 배달 등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일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지금보다 내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행복ICT가 첫직장인 김현진 씨는 업무를 배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일단 업무를 익힌 후에는 꼼꼼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왔다. 김씨는 행복ICT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과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꿈이다.

이들의 성장 뒤에는 이 3인방의 출퇴근을 돕고, 업무를 지원하는 'ICT 인프라 에코 사업팀' 현장 관리자 이옥선 매니저의 어머니와 같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행복ICT는 이들 3인방의 활약 속에서 올해 3억원의 ICT인프라 에코 사업 매출을 기대한다. 내년에는 이들과 함께 일할 발달장애인들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 올레드 TV는 눈이 편안”

기술평가기관 TUV라인란드로부터 아이 콤포트 디스플레이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이 '눈이 편안한 디스플레이'임을 인증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기술평가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대형 OLED 패널에 대해 '아이 콤포트 디스플레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에 필요한 테스트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블루라이트 방출량 ▲빛 반사도 ▲화질 등 세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LG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도 증가나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블루라이트 부분에서 34%(65인치 기준) 방출량으로 기준치인 50%를 하회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동일 인치 최고 사양의 LCD TV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64% 정도임을 감안하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TV 시청 시 눈부심을 유발하는 외부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기술평가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대형 OLED 패널에 대해 '아이 콤포트 디스플레이' 인증을 획득했다. /LG디스플레이

조명의 빛 반사도 부분에서도 0.87%로 1%인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며, 이 역시 1.55%인 LCD 대비 약 절반 정도의 수치다. 아울러, 화질 부분에서도 넓은 색 영역과 HDR 등 모든 분야에서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구서윤 기자

국내 양자암호통신기술, ITU 국제표준 채택

KT·LG유플러스 '세계 최초' 논란 많은 분야서 새 기준 제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 스터디그룹(ITU-T SG13) 국제회의에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권고안 1건이 국제 표준(ITU-T Y.3800)으로 예비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ITU내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채택된 표준이다. 이후 회원국간 회담을 거쳐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이번 표준화는 KT와 LG유플러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제안해 개발을 시작한 이후 국내 7개 기관과 전세계 20여 회원사들이 주도적으로 표준화활동에 참여한 결과다.

이번에 승인된 표준은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계층 모델, 기능적 구성요소 등을 정의한 것으로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사업자와 제조사 관점의 모든 영역을 고려해 새로운 표준화 기준을 잡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양사는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삼성중 '수주렐리'... 1348억 특수선 따내

올해 수주목표 41% 달성

삼성중공업은 지난 28일 유럽지역 선사로부터 1348억원(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특수선 1척을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수주했다고 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해당 선박은 2022년 3월에 인도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0척, 원유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FPSO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 /삼성중공업

1기 등 총 14척, 32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 78억 달러의 41%를 달성 중이

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5억 달러 수주보다 28% 더 높은 실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선종 중심으로 '수주렐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LNG운반선 수주의 경우 클락슨리서치 기준 상반기에 발주된 대형(17만㎥급 이상) LNG운반선 24척 중 10척, 42%를 차지하며 'LNG운반선 명가'로서의 품질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 받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순수 5G'로만 통신... SKT-삼성, 국내 첫 성공

단독규격 5G SA-코어장비 연동 데이터 처리 효율성 3배 높아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국내 최초로 5세대(5G)이동통신 단독규격인 '5G SA' 패키지 교환기와 코어 장비를 연동해 순수 5G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패킷 교환기는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음성, 데이터 트래픽이 인터넷 망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비유된다. 현재 5G 네트워크는 롱텀에볼루션(LTE)과 장비를 일부 공유하는 5G-LTE 복합 규격(NSA) 방식이다. 네트워크를 오롯이 5G 장비로 구성하는 5G 단독 규격(5G SA)은 표준화 개발 소요 시간, 비용, 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 초기에는 NSA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선보인 '5G SA'는 기존 '5G NSA' 대비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세 배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가 이번에 성공한 5G SA 연동은



양사 연구원들이 1일 분당에 위치한 SK텔레콤 ICT기술센터에서 '5G SA'의 기술과 장비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다. /SK텔레콤

실제 고객 대상 서비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양사는 이번 연동 성공으로 5G SA 코어 네트워크의 구조적 완결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5G SA 상용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5G SA에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기능 모듈화' 등 5G 핵심기술이 적용됐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네트워크를 물리·가상네트워크로 각각 분리해 고객 상황에 맞춰 트래픽 품질을 보

장한다. '기능 모듈화'는 블록을 쌓듯 기능을 조합해 고객에게 신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패킷 품질 제어, 전달 단계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이터 병렬 처리 기술' ▲성격이 비슷한 데이터를 분류·분배해 전송하는 '데이터 가속 기술' ▲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플랫폼에 적합한 트래픽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경로 최적화 기술' 등도 함께 적용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